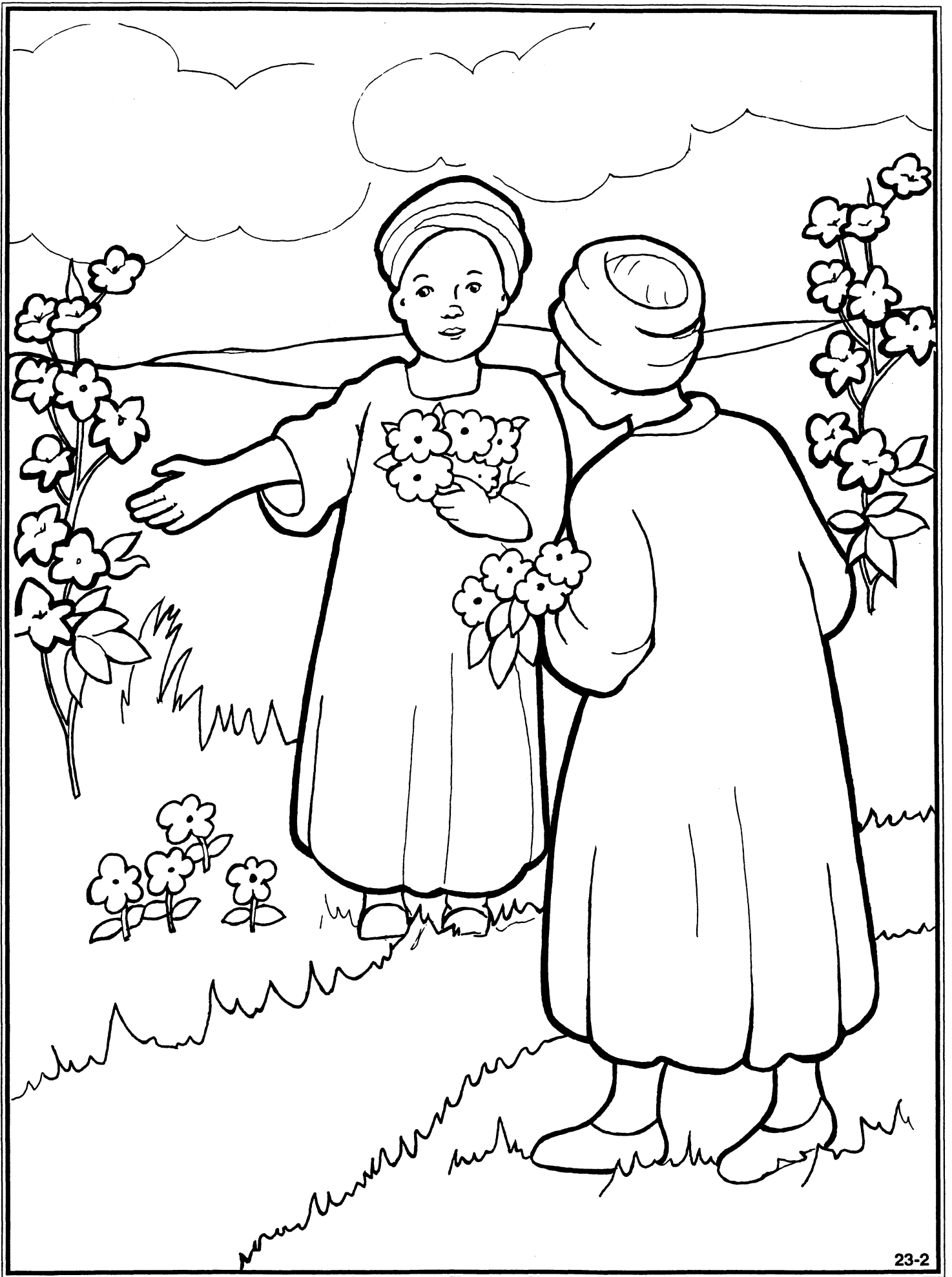


무료입니다 - 하나씩 가져가세요.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이야기: 읽고 색칠하세요.

스물 세 번째 이야기
예수께서 꽃과 새와 사람을 돌보심





예수께서 꽃과 새와 사람을 돌보심

누가 복음 12:27-31

예수께서 꽃들과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또 우리도 만드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꽃들과 새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꽃들은 예쁘지만 예쁘게 되려고 밤을 새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또 돌보십니다. 꽃들은 예쁜 옷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꽃들을 본래부터 예쁜 옷을 입고 자라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들은 먹을 것을 창고에 넣어 놓으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꽃들과 새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도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기 도

주님, 우리로 당신께서 옷과 먹을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해 주세요.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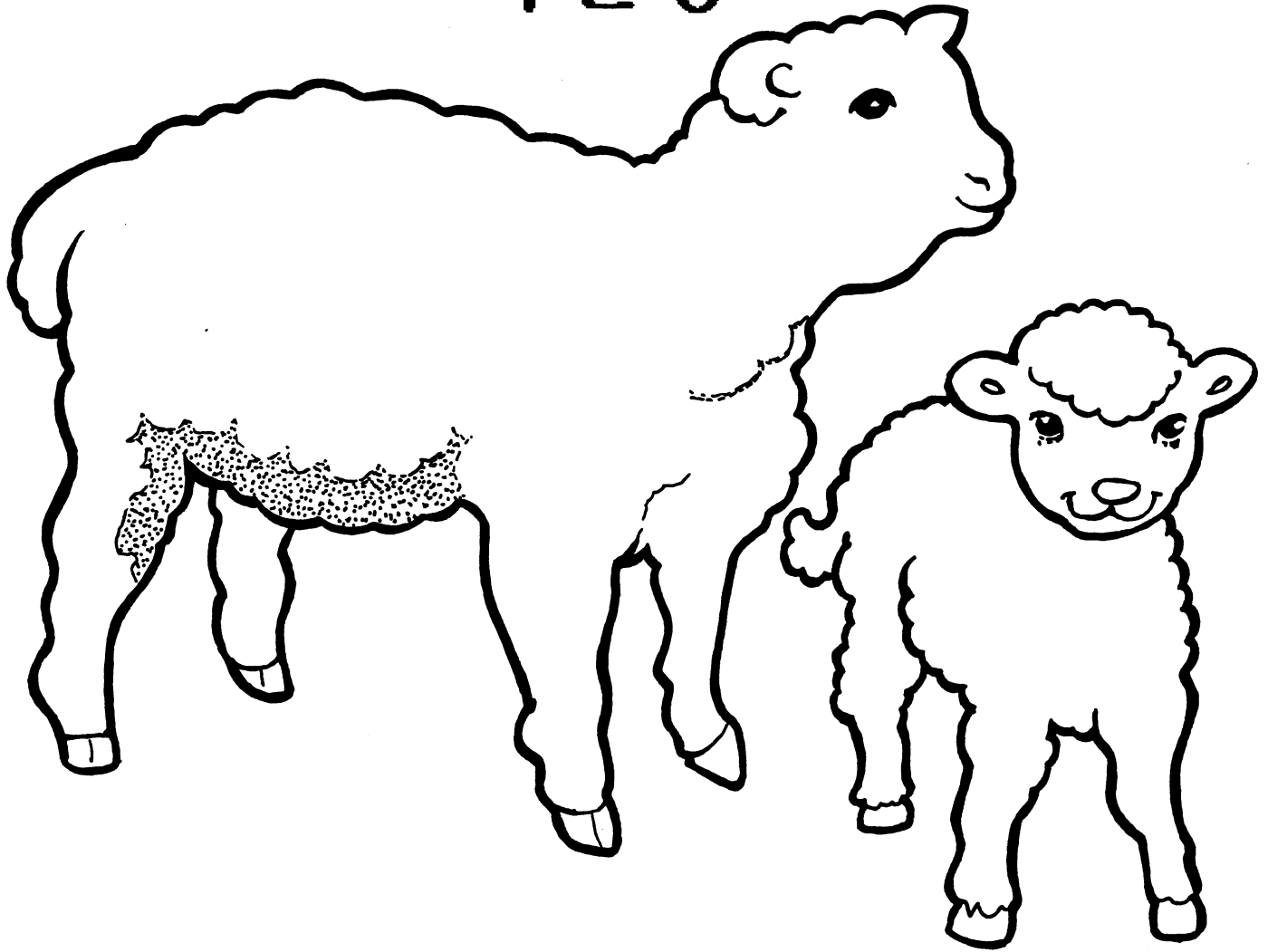
초등부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귀절 (외우세요)

베드로 전서 5:7

“너희 염려를 다 주께(예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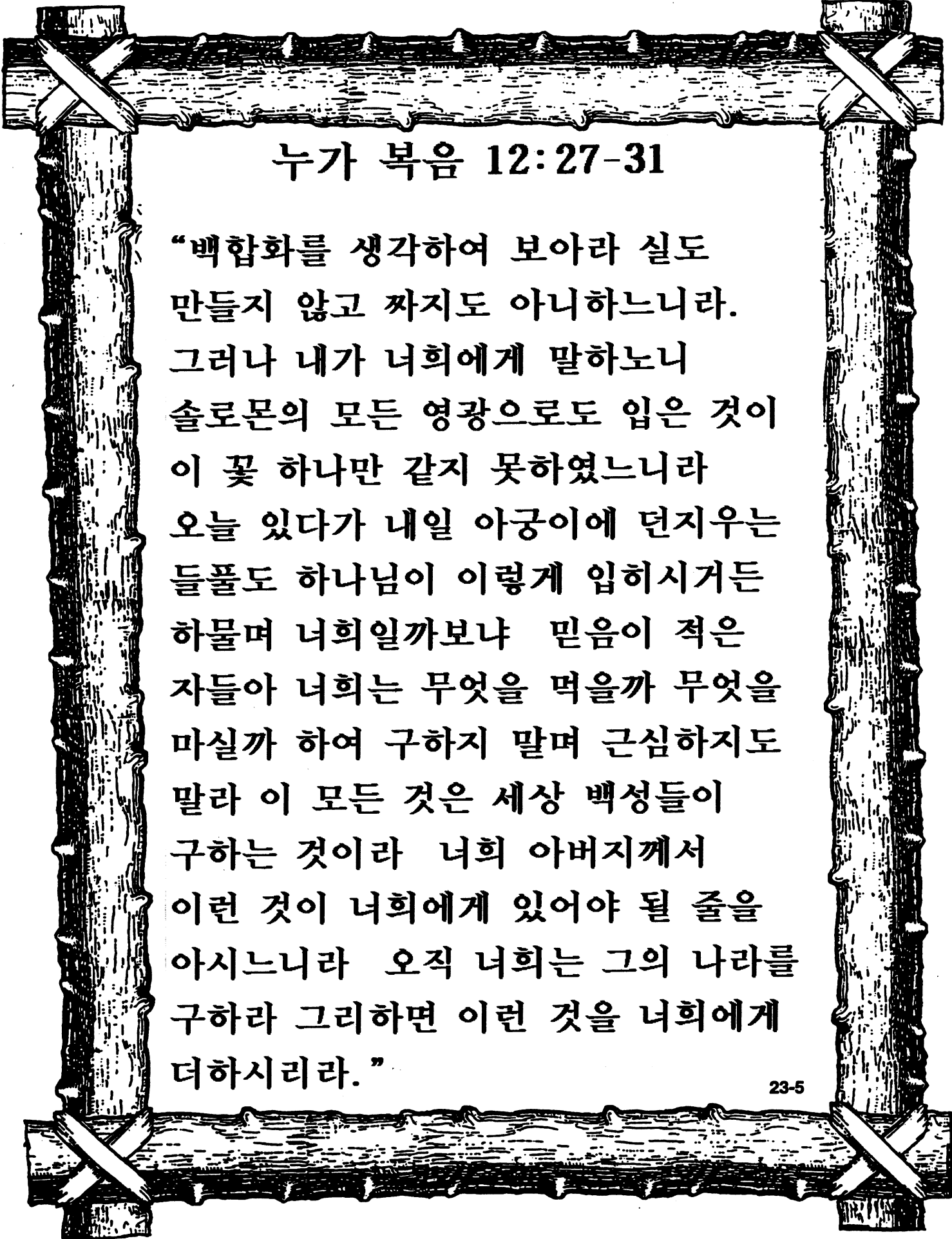
성경 속에 나오는 동물들

어린양



어린양은 음식을 찾거나 집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엄마 양이 어린양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기 때문입니다. 엄마 양은 어린양을 잘 먹이고 안전하도록 지켜 줍니다. 어린양은 그냥 엄마 옆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이와 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도 주시고 집도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단지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누가 복음 12:27-31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